

김정희와 그의 미학적견해

박 정 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슬기와 력사는 문화유산을 통하여 후세에 전하여집니다.》(《김정일선집》 제2권 증보판 34페이지)

우리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문인들 가운데는 18세기말—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추사 김정희도 있다.

김정희(1786—1856)는 봉건사회말기에 활동한 우리 나라 실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선행한 실학사상을 토대로 하여 자기의 새로운 실학적견해를 확립하고 학문연구와 문학창작활동을 벌린 재능있는 학자이며 문인이다.

김정희는 서예와 그림에 조예가 깊었을 뿐아니라 시문학에서도 당시 문단에서 무시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있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그를 《시, 서, 화의 3절》이라고 불렀다.

김정희는 1786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리조판서였던 유당 김로경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를 원춘, 호를 완당 또는 추사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시당, 시암, 례완, 로당, 로과 등의 호를 가지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붓글씨에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있어 부모들과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학식있는 아버지 김로경의 문하에서 글씨와 시문을 익힌 그는 15살이 되던 해에 유명한 실학자인 박제가의 제자가 되어 고증학과 시, 글씨를 배웠다. 박제가의 학문적영향은 그가 후기실학자로서 《시, 서, 화의 3절》로 이름을 날릴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는 24살때인 1809년에 생원시험에 합격하고 1814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충청도 암행어사, 성균관 대

사성,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그는 23살에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청나라에 가서 당시 청나라의 이름난 학자였던 옹방강, 완원 등을 알게 되였고 시와 서예 등 여러 분야의 학문 특히 고고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당시 청나라학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청나라에서 그곳 문인들과의 교류는 김정희의 안목을 넓혀주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는 서유럽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청나라의 사회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금석학과 고고학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길이있는 모색을 하게 되였다.

그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 당시 실학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다산 정약용과 자하 신위와의 학문적관계속에 실학에 대한 그들의 선진적인 견해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실사구시적인 립장을 확립하였다.

김정희는 서예에 대한 이론적연구가 깊었고 서예가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희는 서예를 한갓 글을 쓰는 기교로서가 아니라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진 예술적형상규범을 가지는 예술분야로, 시나 그림과 같은 신묘한 경지의것으로 이해하고 글씨는 글씨를 위한 글씨가 아니라 반드시 정확한 지식과 옳바른 정신으로 뜻있는 내용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웅건한 박력과 자유분방한 필치, 기발한 구성으로 예술적풍격을 자랑하는 그의 독특한 필체는 《추사체》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학자로서의 김정희의 가장 큰 공적은 근대적의미에서 우리 나라 금석학과 고고학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운것이다.

김정희는 당시 금석문들을 탐본수집하

여 서체를 감상하거나 서예의 기법을 연구하는 일면에 치우치던 부족점을 시정하고 역사연구에로의 폭넓은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평양성돌과 황초령비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고증은 우리 나라 금석학계에서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는 북청에서 류배살이를 하는 속에서도 청해토성자리에서 발굴된 물건이 원시시대사람들이 쓰던 돌도끼, 돌활촉이라는 것을 고증하였으며 경주에서 조산(인공적으로 만든 산)으로 전해오던것들이 다 신라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이라는것을 고증하고 《신라진흥왕릉고》를 저술하였다.

김정희는 화가로서도 이름이 있었다. 풍경화와 란초와 참대를 즐겨 그리곤 하였는데 《산수도》, 《목죽도》, 《목란도》, 《호수가의 정자》 등 적지 않은 미술작품들이 남아 있다.

김정희는 이밖에 천문, 력학, 지리,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김정희의 문집으로는 《완당집》(10권 5책)이 있고 저서로는 《례당금석과안록》, 《해동금석목록》 등이 있다.

김정희는 이전시기의 실학자들의 미학적견해와 이론을 비롯한 선행한 창작적견해와 방법을 모두 받아들인데 기초하여 자기의 고유한 미학적견해를 수립하였다.

그의 미학적견해는 이전시기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의 미학사상에 토대하고 그것을 문학에서 근대적요소가 날로 강화되던 19세기의 시대적현실에 맞게 한걸음더 전진시켰다고 볼수 있다.

《완당집》 8권에 수록되어있는 《잡지》부분의 기록과 그의 시평시와 화평시를 비롯한 많은 시작품들에서는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김정희의 진보적인 미학적견해를 보여주고있다.

김정희의 미학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모방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

인 창작경향을 반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풍격의 문학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견해이다.

이것은 시대와 문학의 관계문제를 밝힌것으로서 그의 미학적견해에서 중요내용을 이룬다.

김정희는 우선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문학의 발전이 필수적인것이라고 보았다.

시대가 변화발전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문학작품의 내용도 변화발전하기마련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서도 고루한 보수 문인들은 지나간 시대의 문풍을 그대로 본받거나 지어는 주요문구를 따다가 자기의 시처럼 창작하는 고루한 수법에 매여달리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기교본위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문풍을 반대하면서 김정희는 자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새로운 곡조로 노래된 진정한 시작품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장하였다.

《대체로 우리 나라의 임진란이후에 나라의 풍속과 운수가 어떠하다는것은 알지 못한다. 조정의 법전으로부터 향간의 풍속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것이 없는데 지금 문장과 서화의 작은 도리가 회복되지 않고있다. ...명종이후에는 흐르는 물과 같이 맑은 시풍은 얻어볼수가 없다.》(《완당집》 8권 《잡지》)

우의 기록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김정희는 17세기 이후 변화된 우리 나라의 시대현실을 무시하고 재래적인 문학의 창작을 시도하는 당시 문단의 폐풍을 비판하면서 자기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자기 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는 자기의 시 《시 한편으로 시의 도리가 일어난 까닭을 밝히노라》에서 해당시대를 반영하는 시를 창작할데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시를 배운지 20년이나 되면서도

당나라시를 배운 원나라사람의 시를 그대로 본따려는 한 젊은 시인을 두고 이러한 처사는 《양의 몸에 범가죽을 씌우》려는 어리석은짓이며 《썩은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는 가련한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시는 해당 시대의 요구와 지향, 그 시대의 고유한 생활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희는 또한 문학의 내용뿐아니라 형식도 시대의 변천과 높아지는 미학적요구에 수응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진보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형식의 변화를 주장한 김정희의 견해는 한문문체의 하나인 《사》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알수 있다.

그는 《사》의 형상적특성에 대하여 《사물에 느끼여 발생하면서 찌르고드는 유형은 각이하게 나타나는데 모두가 한가지로 조각을 새기듯 해놓을수 있다.》라고 하면서 력대로 내려오던 이름있는 《사》작품들과 작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활발하게 창작되던 《사》가 마침내 자기의 형태를 시대의 변화에 부합시키지 못하였기때문에 《방탕하고 음란한것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완당집》 2권 《답조이당》) 결국 서서히 사멸되어간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김정희는 문학의 내용뿐아니라 형식까지도 변화되는 시대현실에 따라 세워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김정희의 미학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학이 인간과 생활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견해이다.

그는 《세상에는 흔히 글쓰는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글을 한갓 유희로 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옳바른 길을 밝힐수 없으므로 문장과 세상의 도리는 긴밀히 련결되어있으며 조금도 떨어질수 없는것이다.》(《완당집》 8권 《잡지》)

고 하면서 문학을 한갓 《유희》가 아니라 《세상의 도리》와 련결되어있는것으로, 생활의 《옳바른 길》을 밝히는 인식과 교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었다.

이러한 견해는 그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보다 구체화되고있다.

《글을 쓰는 목적이 네가지가 있으니 도리를 밝히는것, 세상을 건지는것, 알맹이를 찾아내는것, 풍속을 바로잡는것이다. 이 네가지 목적을 법으로 하고 그후에 여러가지 수법과 규칙으로 다듬으면 이러한 글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며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완당집》 8권 《잡지》)

우에서 김정희는 문학작품이 인간생활의 교과서로, 생활을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작가가 생활의 리치와 본질을 옳게 반영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있다.

김정희는 문학을 인간생활과 밀접히 련결시켜 논의하였을뿐아니라 문학작품에 담겨있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폭과 내용을 밝히려고 하였으며 나아가서 그것을 옳게 형상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에까지 논의의 폭을 넓히었다. 특히 그는 시창작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체 시의 세계란 넓고 커서 그속에는 없는것이 없다. 웅장하고 씩씩한 감정, 섬세하거나 순후한 감정, 고상한 감정, 기이한 감정 등이 있는데 이 모든것은 각각 자기의 성정을 따라야지 근사한것으로써 ...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완당집》 8권 《잡지》)

이 글에서 김정희는 인간과 생활에서 환기되는 감정정서는 매우 다양하며 그것은 시를 짓는 작가의 창작적개성에 따라 비반복적으로, 진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있다.

김정희의 미학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

음으로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서 내용을 우선시하면서 형식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는 선행시기 문인들속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김정희는 구체적인 문학형태들을 실례들면서 비교적 상세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대체로 감정을 지나치게 수식하는것은 문장에서 크게 꺼리는 바로 된다고 하면서 당시 형상기교에만 매달려 작품의 내용에는 거의나 주의를 돌리지 않던 형식주의적인 문풍을 비판하였다. 문학작품에서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할데 대한 김정희의 견해는 그의 시 《소화에게 부치노라》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이젠 알리 결만 번드르한 시는
꽃이 흩어져 날리는것과 같아라
큰 이름 공연히 생기는게 아니라네
험한 경지 건너야 마침내 귀해지리
헛된 기운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시공부를 그만두는것만 못하리

시에서 그는 《결만 번드르한 시》-내용보다도 형식미에만 치우치는 시창작경향에 대하여 부정의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정희는 시창작에서 형

식미에만 치우치면 《꽃이 흩어져 날리는 것》과 같이 작품의 생명력을 잃게 되며 참된 《기운》 즉 내용을 중시하는 시라야 시문학으로서의 참다운 가치를 가지는것이라고 보고있었다.

김정희는 특히 한자시에서 시의 형식인 《운》을 위주로 하고 시의 내용인 의미를 홀시하면 언제나 화려한 수식이나 인위적인 주입만을 하게 되고 결국 시의 내용이 충분히 관통되지 못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화운은 실지에 있어 운을 잡기내기일뿐이다. 마땅히 그 혈맥이 가로 뻗어 시구는 이어지나 의미가 끊어진다. 뜻있는 선비라면 마땅히 속되고 침침한데에 갇혀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완당집》 8권 《잡지》)고 하면서 한자시에서 《운》도 살려야 하지만 그보다는 《의미》를 살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희가 가지고있던 미학적견해는 선행미학리론의 우수한 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을 19세기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시킨것으로서 후기실학파문인들의 문예관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